

# 영화감독 김기덕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

---

## ■ 진행순서 ■

사회 : 정슬아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 발언

- :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 박건식 | MBC <PD수첩> 피디
- : 남순아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 : 이상길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 최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 : 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 : 손문숙 |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 ■ 질의응답

---

2019. 3. 7 (목) AM 10시 30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엔젤라홀

주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발언문 1]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기덕 감독은 올해 2월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민우회는 이를 2월22일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 민우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영화감독 김기덕에 의한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입장문

우리는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협박’하는 김기덕에게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1. 김기덕 감독은 본 단체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혀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지난 30여년간 차별해소과 반성폭력운동을 해 온 민우회 역사 전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임을 알고 불법을 운운하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다. 영화 현장을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김기덕 자신이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진실을 규명하려는 언론과 단체를 고소하는 행위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2. 피해의 목소리에 반성과 사과도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도 익숙한 가해자들의 모습이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MBC <PD수첩> 제작진과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미 제작진과 피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한 단체에조차 3억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한심한 행동을 완전히 복제한 듯한 김기덕 감독의 행보가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가 소송으로 위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조력자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3.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 때문에 자신의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성평등한 영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이들의 상식적인 열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는 김기덕 감독에게 전한다.

우리는 단 한 발의 퇴보도 없을 것이다.

이 싸움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의 정의를 통해 끝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6일

한국여성민우회

## [발언문 2]

박건식 (MBC <PD수첩> 피디)

내일은 세계여성의날입니다. 그런데 여성인권을 위해 의견표명을 하는 것조차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견표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받고 영화제 측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그 단체가 자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3억이라는 시민단체로 보면 만만치 않은 거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는 것은, 금액의 상징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여성민우회의 시민단체 활동,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태도 또는 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MBC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방송을 두 차례 했습니다. 한 번 방송을 하고 두 번째는 2차 가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에 대해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한 차례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PD수첩>과 여성 배우에 대한 형사 고발입니다. 그런데 민우회 입장문에도 드러난 것과 같이, 형사 소송에 대해서 <PD수첩> 제작진, 여성 배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또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한 편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합니다. 단일 사례만 가지고 방송을 제작하지 않고, 광범위한 취재를 하고 충분한 사유가 될 때 프로그램 제작판단을 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여성 배우 한 분에 대해서만 지칭을 하였는데, 그것은 김기덕 감독을 고소를 한 여배우가 한 분 밖에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취재 과정에서 많은 배우를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분이 워낙 많았습니다. 영화계라는 곳이 워낙 좁은 곳이다 보니, 여성 배우의 입지에 대해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하고 있는 것이지 피해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덕 감독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게 나선 배우 한 분이 있는데,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 났다고 해서 김기덕 감독의 모든 활동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은 법적 대응이 아니고, 본인의 과거를 차분하게 자성하고 성찰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성찰 속에서 어떻게 한국 영화계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지, 이렇게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 억 대의 소송을 통해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문 3]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지난 2월,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유بار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의 개막작 선정을 취소 요청한 것으로 인해, 해당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여성민우회에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입힌 것은 한국여성민우회나 공대위가 아니라, 바로 김기덕 감독 본인입니다. 지난 해 김기덕 감독이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고발한 배우와 PD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을 때, 김기덕 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듯 말입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촬영 현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용기 덕택에 수면 위로 드러났고, 더이상 그 폭력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의 영화와 그가 별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끼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입니다.

김기덕 감독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유بار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귀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 영화제의 초청 결정이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길 바랍니다. 그 결정이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 [발언문 4]

이상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우리 손에 쥐어질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굴뚝이 내뿜는 연기와 썩어 낀 미세먼지가 용납되진 않습니다. 망가진 세상에서라면 멋진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누구도 좋은 영화를 위해 사람을 쥐어짜고 희생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전체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 현장이 망가진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도 나빠질 것이며 사회도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오염된 제작과정을 통해서라면 아무리 좋은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망치는 과정에 가속도를 더할 뿐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통해 다수의 영화제작 중에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용기있는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미투행동이나 탐사추적 방송 이후에도 납득할 만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영화제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작과정을 통해 만든 영화로 쌓은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활동의 제약과는 상관없이 국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된 것을 이유로 자신은 성폭력가해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이 고소한 배우와 PD수첩에 대해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피해자 진술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며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2차 가해와 다름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 영화계 개막작 초청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계가 추가적 피해를 가하는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화노조는 영화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말의 부당한 행위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사과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있어 공동대책위와 함께할 것입니다.

## [발언문 5]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오늘 일본에서 개막하는 제29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김기덕 영화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실행위원회는 개막작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김기덕 영화감독은 공문을 발송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초청을 취소해 달라는 성명을 내 본인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영화감독의 성폭력도 이전에 미처 고발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용기가 '거장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성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자면, 증거불충분이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를 남용하는 이유는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가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고소로 피소되면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복수의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수 없으며, 역고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해야 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사안을 다룬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했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무고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받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덕 감독의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허위라는 광범위한 의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든 행동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폭력은 더 이상 용인될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연대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여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김기덕 감독이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 [발언문 6]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영화감독 김기덕은 여성단체에 대한 3억원 손해소 철회하고 오히려 다수에 의해 영화촬영 현장에서 자행되었다고 증언되고 있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를 사죄해야 합니다.

영화감독 김기덕은 민우회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된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할 것의 취소를 요청한 것을 두고 3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우회의 공문 송부가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의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우회가 한 일은 다른 어떤 단체라도 나서서 했을 일이고 우리 여성단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소위 영화계 거장 감독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있을 때, 그 고통 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나아가 영화계에서 소위 예술을 빌미로,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되고 묵인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체 영화계의 성찰을 요구하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 여성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각 분야에서의 잘못된 문화와 규범을 바꾸는 공익활동이자 영화계에서의 성평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한 공익활동에 손해소를 청구한 것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을 끝장내고자 하는 여성들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제기하는 이러한 역고소가 번번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의 청구와 기각은 반성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추한 모습과 회생가능성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한 배우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의 불기소 처분이 그러하고, 이번 김기덕 감독의 손해소 제기 또한 그러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달라진 성폭력에 대한 사회규범과 여성들의 인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역고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분연히 싸워나가고자 결의를 다질 뿐입니다. 미국 영화제작자에 대한 미투에서 시작된 성폭력 근절의 흐름은 전 세계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이고 누구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반성하지 않는 영화인은 그 누구라도 영화계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고 김기덕 감독이 설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일은 3.8 여성대회입니다. 미투로 시작된 변화를 멈추지 않을 것을 우리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강력한 연대로 당신의 반격을 넘어설 것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시대변화에 낙후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김기덕사건에 함께 대응해왔다. 이는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사과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지원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김기덕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소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기덕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도발을 경험하였다. 고은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모해위증죄 고소를 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들은 피해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자도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 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예가 누구에 의해 훼손되었는지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와 맞서고, 수많은 피해자에 편에 선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 정도로 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